

북구, 한강 작가 노벨상 기념 ‘공상의 방’ 조성 무산

광주 북구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고 '문학 인재' 양성을 위해 조성하려던 '공상의 방'이 예산 삭감으로 무산됐다.

24일 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에서 '공상의 방' 조성사업 예산 1억8천만원이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공상의 방은 북구가 한강 작가가 살았던 중흥동에 있는 중흥도서관 1층을 활용해 만들려던 공간으로, 한 작가의 부친이 "딸이 초등학교 때 감감한 방에 앉아 있어서 무엇하냐고 물었더니 공상

을 하고 있었다고 답했다"는 말에 착안해서 추진됐다.

북구는 공상의 방에서 자유롭게 사색한 이용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공간도 다음 해 1월까지 같이 조성하기 위해 예산안을 이번 회기에 제출했다.

그러나 공상의 방 예산안은 제209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된 지난 19일부터 못매를 맞았다.

당시 기대사·전미용 의원은 각각 긴급 현안질을 통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예도대의구인 의회의 심의를 거처기전

중흥도서관에 추진...의회 "협의 없는 등 절차 무시" 예산 전액 삭감

북구 "적극 행정" 내년 추경 때 재편성...노조 "상호 존중 부족" 비판

자문위원회를 열고 실시설계 용역까지 진행한 것은 '절차 무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북구는 구정장까지 나서며 '적극 행정'의 일환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음 날 열린 경제복지위원회

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공상의 방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예산안을 올린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

회에서 전액 삭감하더라도 예결위에서 다시 살릴 수 있는 만큼, 북구 내부에선

앞선 때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으나 '일방적인 추진'이 계속 발목을 잡아 결국 공상의 방

은 당초 계획대로 조성할 수 없게 됐다. 북구는 다음 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 공상의 방 예산을 다시 편성할

예정이다.

이로써 공상의 방을 둘러싼 공방은 일단 막을 내렸으나, 제2차 정례회 시작 때부터 지퍼진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의 불씨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19일부터 북구청 내부 게시판에는 긴급 현안질의 등에서 보였던 의회의 '고압적인 태도'에 대해 성토했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 지역본부 북구지부는 집행부와 의회 간 '상호 존중'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릴레이 1인 시위를 계획하기도 했다.

공무원노조 북구지부 관계자는 "실제 행동 여부는 주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이번 회기에서 나타났던 일은 어느 한 쪽이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 모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익명의 한 공직자는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부분엔 공감하고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나, 좌초될 정도의 문제였나 되짚어보게 된다"며 "사업의 당위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닌 '기분' 또는 '정치적 논리'에서 비롯된 결정이라는 주위 의견에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안재영 기자

日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위자료 '4배 증액' 배경은?

광주지법 민사13부, 피해자별 4억 인정

"청구금액 유사 수령 위한 것" 해석

광주지법 민사13부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를 다른 유사 소송의 인정액보다 4배가량 늘려 결정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3부 (정영호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미쓰비시 파테리아루 (옛 미쓰비시 공업)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14명에 대해 최근 승소 판결했다.

선고 당시 정 부장판사는 "피고는 (판결문상) 별지 기재 금액을 각 원고

에게 지급하라"고만 말하고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송 당사자들도 판결문을 보기 전까지 인정액을 알 수 없었는데, 확인 결과 재판부는 각 피해자별 위자료로 4억원을 인정했다. 이는 이번 소송의 원고가 위자료로 청구했던 최대 금액 (1억원)보다 4배나 많다.

재판부는 "불법 행위의 경위·정도, 피해 수준 등과 함께 오랜 기간 피고가 보상이나 배상을 완강히 거부해 온 사정도 고려해 1인당 위자료를 4억원으로 정한다"며 "일제강제동원 불법 행위 발생으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났고, 별도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지 않기로 한 사정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통상 강제동원 소송은 1차 때부터 생존 피해자 기준 최고 1억5천만원이 위자료로 인정됐다. 2차 소송부터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이 주를 이뤄 인정액은 대부분 1억원 내외였다.

그러나 직접 피해자가 아닌 유족이기에 인정액 중상속분만 받을 수 있었다. 때문에 광주지법 민사13부가 1인당 위자료 인정액을 4억원까지 늘린 것은 각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 최대한 맞춰서 수령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 원고 중 한 명은 청구한 1억원 그대로 인정받는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원고들도 청구액 대비 29~98%를 인정받았다.

다만, 이번 판결은 항소심에 따라 인정액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안재영 기자



‘윤 퇴진 광주시민 시국대성회’

윤석열 퇴진 시국대성회 추진위원회 주최로 지난 23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광주시민 시국대성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애리 기자

檢,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

도피 도운 공범엔 1년6개월...내달 13일 선고

광주 도심에서 '마세라티'를 몰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을 사상케 하고 달아났던 30대 운전자에게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을 위반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32)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지난 22일 열었다.

김씨는 지난 9월24일 오전 3시11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다른 조력자의 도움을 받고 광주에서 벗어난 김씨에게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오씨에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으로 20대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었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구호 조치 없이 사고 직후 도주해 상당 기간 도피를 이어갔

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저지른 사고로 현재도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김씨와 오씨에 대해 선고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도주를 도운 공범 2명을 범인 도피 혐의로 별도 송치했고, 뺑소니 사건과 별개로 김씨에 대한 불법 사이버도박 관여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또 사고가 난 마세라티 외에도 특정법인에서 10여대의 대포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범인 대포 등 4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안재영 기자

친모 상습폭행 60대 ‘징역 3년’...3번째 실형

고령의 친모를 상습 폭행해 교도소에 수감됐던 60대 아들이 출소 후 어머니가 받은 범죄피해자 보상금의 행방을 따져 물으며 또다시 폭행해 3번째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광주지법 형사4부 (정영호 부장판사)에 따르면 상습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2월 곡성군 자택에서 80대 모친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트리 등 상습 폭행하며 "죽어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에도 모친을 상습 폭행해 두차례 실형을 산 A씨

는 모친에게 "당신이 경찰에 신고해 교도소 수감생활을 했다"며 "범죄피해자 지원금으로 받은 200만원은 어디에 썼느냐"고 따지며 폭행했다.

당시 경찰 신고나 출동 정황 등이 A씨의 범죄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했으나 A씨는 재판에서 "양로원에 보내겠다는 말에 모친이 폭행·협박당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방어 능력이 없는 고령의 어머니를 상대로 패륜적인 폭력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재영 기자

여수서 석출 무너져 3명 중·경상

여수 한 공사 현장에서 석축이 무너져 작업자 3명이 크게 다쳐 부상을 입었다.

24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18분께 여수시 신덕동 한 야적장에서 석축을 쌓던 굴삭기가 넘어졌다.

이 사고로 석축이 무너졌고 그 아래에 깔리거나 파편에 맞은 50~60대 작업자 2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함께 일하고 있던 70대 작업자도 가벼운 부상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부상자들은 모두 생명이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여수=김전선 기자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줄어듭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